

# 자공 '등불', 세계적 명성 떨치다

## - 국내 등불 전시 시장 점유율 85%, 등불축제 80 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진출

일전 사천성 자공(自贡)시에 있는 등불 제작 업체인 자공등문화예술유한회사의 생산 작업장. 현장에서는 용접 불꽃이 튀면서 중국 풍의 뼈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통비늘에 색을 입히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 설계, 도면 그리기에서 적합한 재료를 선택해 조형물을 만들고 광원과 전동 시설을 배치하고 도배·부착·채색을 마무리하기까지... 등불 제작은 과정이 번거롭고 절차가 많으며 숙련공에 대한 수요가 크다. 회장 등배림은 "자공시 소재 등불 업체는 축제 기간에 임시까지 합쳐 10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등불은 사천성 자공시의 브랜드이자 현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엔진이다. 1964년 음력설에 제1회 음력설 등불축제가 열리면서 자공시는 등불과 인연을 맺었다. 수년간의 발전 끝에 오늘날 등불 디자인·제작·전시 단계의 분업은 나날이 세분화되고 산업망은 지속적으로 완비되고 있다. 현재 자공시에 소재한 등불 관련 기업은 천개가 넘고 연간 생산액은 약 60억원에 이르며 국내 등불 전시 시장의 점유율은 85%에 달한다.

작업장 관리 게시판에는 주문이 빼곡이 적혀있다. 외국에서 들어온 주문도 적지 않다. 등회장은 "자공시의 등불축제는 인지도가 있어 광주교역회 등 중요한 전시회와 주요 국제 판매 플랫폼에 등장하며 좋은 제품은 판로가 호황이다"고 말했다.

불꽃속에서 거대한 기계 년수(年兽)가 머리를 흔들며 으르렁거린다. 2월 2일 제30회 자공국제공룡등불축제가 개막되었다. 과학기술로 무장한 '년수하세등'(年兽贺岁灯)을 보기 위해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왔다.

"등불 공예에 모형 공룡의 기계 전동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등불 세트는 무게가 10톤 이상 나가지만 십수가지의 동작을 매끄럽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 등불축제 총기획자는 "년수에 'AI 대뇌'를 탑재해 관람객과 음성 질의응답도 주고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매년 등불축제에서는 우수한 공예 기술과 재료, 디자인 주제를 방문객과 바이어들에게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이다. 지난해 자공시 소재 등불 업체는 각 지역에서 200여개의 등불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속적인 혁신은 인재 지원과 갈라놓을 수 없다. 사천경화학공업대학의 전국 첫 등불대학 설립, 자공직업기술대학 등의 등불전공 설립에 힘입어 자공에서는 매년 2,000명이 넘는 '등불 장인'을 양성할 수 있다.

지난 2월 11일 프랑스 몽토방시에서 '환상세계, 환상려행'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중국 등불축제가 막을 내렸다. 3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이번 프랑스 등불축제에 참여한 자공등불그룹 해외프로젝트 팀장 황명술은 이에 대해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황팀장은 전시회를 열기 위해 지난해 9월 팀과 함께 프랑스로 갔다고 말했다. 그는 "등불 디자인·제작·설치에 필요한 모든 직종을 포함해 80여명이었다."

면서 "등불 제작에 필요한 자재와 반제품은 중국-유럽 화물열차나 해운을 통해 배송하고 팀이 행사장에 도착한 후 추가적으로 가공했는데 등불 세트 제작에는 3개월 정도 걸렸다"고 소개했다.

자공시의 등불축제는 1990년 싱가포르에서 첫 해외 전시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8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진출했다. 해외 등불 전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에 달한다.

문화는 교류를 통해 더욱 다채로워진다. 프랑스에서 열린 이번 등불축제에서 방문객은 신기한 마법모자를 따라 광활한 은하수, 신비로운 숲 등으로 이뤄진 환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속에는 중국 풍경, 자이언트판다 등이 있고 중국적 문화 요소와 서양의 문화 요소가 어우러져 있었다.

업체 관계자는 "등불축제가 스누피·피터 래빗 등의 캐릭터를 도입하고 외국 작가들의 그림 작품을 등불로 해석했는데 이런 전시품들은 외국인 관람객에게서 사랑받았다"고 말했다. /인민넷

① 인터넷 게임을 제재로 한 등불 조합. ② '무형문화유산 중국풍', 길이가 20.4미터이고 통비늘은 3만점의 공작등으로 조합되었다. ③ '년수하세등'(年兽贺岁灯), 인공지능 등불로 조합되었다.

신소재 도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웅장하고 화려한 '여몽비천등'(如梦飞天灯)은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용성 수지로 모양을 만들었는바 실제 사람의 얼굴과 거의 흡사했다.

디자인 주제도 교체되거나 새롭게 바뀌고 있다. 등불차를 탄 인기 게임과 IP 캐릭터가 젊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등불축제는 색채 다양화도 시도해 분무기나 에어브러시(空气刷)를 사용, 색채의 변화를 묘사하고 오색찬란한 시각적 효과를 연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공시의 등불산업은 160개 이상의 특허와 7,000여개의 등불 저작권을 보유하고

# 뜨겁게 달아오른 공연시장... 문화관광 소비에 활력

일전 관중들로 북적이는 광서체육센터, 수천명의 팬들이 야광봉을 휘두르며 떠들었다. 열기 뜨거운 콘서트장은 문화예술의 활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중국공연협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3분기 중국 전역에서 상업 공연이 34만 2,400회 열렸다. 이는 그 전해 동기 대비 278.76% 증가한 수치다. 공연 티켓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453.74% 확대된 315억 4,100만원을 기록했다.

공연시장에선 수요와 공급 모두 활기를 보였다. 여행가방을 끌고 가 공연을 보는 것은 흔한 관광 쉼나리기가 되었다. 수만명의 콘서트 관객들의 류입은 행사 개최 지역에 관광·교통·숙박·외식·오락 등 다양한 소비를 불러일으켰다.

이뿐만 아니라 공연시장이 활성화되고 야간 쇼핑·식사·공연 등 업계가 동반 성장하면서 도시의 야간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주입했다.

광서 남녕시 랑서(垌西) 아시장은 밤의 장막이 드리우자 사람들로 인산



▲ 일전 광서 '문화 북해' 활동주간 개막식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배우들

인해를 이루었다. 현지 관계자는 "공연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아시장으로 몰려와 새벽까지 줄을 서서 물건을 구매한다"며 공연이 늘어나면서 외지 관광객수도 점차 증가하고 아시장이 인기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 일부러 성도에서 남녕까지 온 향신아씨, 공연의 시간에는 남녕 청수산 등 유명 관광지를 구경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등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고

한다. 그는 "젊은 사람들은 콘서트 때문에 관광을 계획하기도 한다"며 "즐거이는 노래 한국을 매개물로 하여 한 도시와의 감정적 거리를 좁힐 수 있게 되는 신선한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고 전했다.

각지의 문화관광 관련 부서에서는 쟁쟁한 패션 체험, 전통악기 동고(铜鼓) 연주, 우렁이쌀국수(螺蛳粉) 맛보기 등 민족문화에서 음식문화에 이르기까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동시에 가수·배우 등과 함께 현지 특색 문화와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해 입소문을 타는 등 좋은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공연시장이 흥성함에 따라 콘서트, 음악 페스티벌도 함께 활기를 띠고 있다. 그중 광서 북해, 운남 곡정, 절강 구주 등 지역이 발군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남녕시는 콘서트 기간 빠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현장에 차량을 배치해 관람객들의 이동 편의를 도왔다. 북해시 음악 페스티벌 현장에서는 주최측이 무료로 식사나 녀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광서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소장 도화는 "흥성하는 공연시장은 소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주최측, 지방 모두에 '윈윈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하면서 "행사 개최 지역은 인프라를 완비하고 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신화넷



천진 장씨 흙인형 채색소조 전시품

# 점토예술 '천진 장씨 흙인형 채색소조'

최근 천진 장씨 흙인형(泥人张) 채색소조(塑造) 특별전이 천진미술관에서 열렸다. 장씨 흙인형 채색소조의 약 200년 발전사를 담은 작품 70점이 전시되며 장씨 흙인형 채색소조의 예술적 성과를 집중 소개하고 백여년의 계승을 거듭하며 이어진 중국 전통 채색소조의 변함없는 예술적 매력을 선보였다.

천진 장씨 흙인형 채색소조는 장명

산(张明山)이 청나라 도광년 때 창시했는데 중국 전통 채색소조 예술을 대표하며 2006년에 1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959년에 천진 장씨 흙인형 채색소조 스튜디오가 설립되면서 가족 수공업계승의 한계를 깨뜨리고 정통한 채색소조 인재를 양성했으며 장씨 흙인형 채색소조 예술 발전을 사회적 공익사업으로 발돋움시켰다. /인민넷

# 우리의 명절과 기념일

## 식수절의 유래와 의의

- 신기덕 -

식수절은 법에 따라 나무를 선전하고 보호하고 식수 및 조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명절이다. 기간에 따라 식수일, 식수주, 식수월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국제식수절이라고 한다. 활동을 통하여 호림, 조림에 대한 사람들의 열성을 불러일으키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중국의 식수절은 룡도양, 한안, 배의리 등 립학자(林学者)들에 의해 1915년에 체결되었으며 처음에는 매년 청명절을 식수절로 정했었다.

1928년 국민정부는 손중산 서거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식수절을 3월 12일로 변경하였다. 새 중국이 창건된 후 1979년 등소평의 제안으로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매년 3월 12일을 식수절로 결정하였다. 2020년 7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삼림법>이 시행되어 매년 3월 12일이 식수절로 명시되었다.

중국 고대에는 청명절에 버드나무를 심는 전통이 있었는데 역사상 최초로 나무 심기는 1,400여년전 위효관(韦孝宽)이라는 사람이 섬서에서 처음으로 나무를 심은 것이었다. 중국의 식수절은 시대의 변화로 인해 세번이나 개정되었다. 중화민국 4년(1915년)에는 손중산의 창의하에서 당시 농상부 총장이었던 주자제가 매년 청명절을 식수절로 정하였다면 중화민국 17년(1928년) 4월 7일 국민당정부는 "청명식수일은 총리 사망 기념 식

수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였으며 중화민국 19년(1930년) 2월에는 행정원과 국민정부에서 3월 9일부터 15일까지 한주일 동안을 '조림운동 선전주'로 정하고 총리가 서거한 3월 12일에 식수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수절은 삼림의 리익을 선전하고 대중을 동원하여 의무조림에 참여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축제이다. 이 식수절은 아주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자연을 록화하고 미화하여 우리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삼림자원을 확대하고 토양류실을 방지하며 농지를 보호해준다. 나무를 많이 심고 잘 키우면 기후를 조절하고 생태균형을 유지시키며 산소를 생성하고 독성가스를 흡수하며 수원을 보존하고 조류와 기타 동물의 번식지를 제공해준다.

삼림은 소음을 감소시키고 공기 습도를 증가시키며 도시 삼림 건설에 도움이 된다. 식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삼림 사랑과 조림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고 삼림 기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토지 록화를 촉진시킨다. 식수절은 환경 보호와 생태평형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사막을 다스리는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유효한 방법은 식수조림이다. 식수조림은 자연을 록화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림자원을 확대하고 토양침식을 방지하며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당대에 리롭고 자손에게 리로운 웅대한 백년대계 공경이다.



# 국가 중대 전문박물관 - 은허박물관 신관 개관

하남성 안양시에 위치한 은허(殷墟) 박물관 신관이 지난 2월 26일 정식으로 개관되었다. 해당 박물관은 처음에 상(商) 문명을 전방위로 소개한 국가 중대 전문박물관이다.

은허박물관 신관은 안양시 원하(洹河)강 북안에 위치해있는데 은허궁중묘 유적지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으며 전시 면적이 약 2만 2,000평방미터에 달한다. 청동기, 도기, 옥기, 갑골 등 각종 문물 약 4,000여점을 전시한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것으로서 각종 고고학 분야의 새로운 성과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인민넷



# 운남, 천년 역사 자랑하는 이족 패션쇼



일전 운남성 초옹이족자치주 영인현 직저촌에서 이족 전통 패션쇼인 '이족 색장절(赛装节) 문화 행사가 펼쳐졌다. 영인현 직저촌에서 기원한 이족 색장절은 오래된 '시골 패션쇼'로 불리

며 1,300년의 긴 역사를 자랑한다.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사람들은 민족 전통 의상을 입고 직저에 모여 패션쇼를 벌이며 춤을 춘다. 밤에는 영인현에서 이족의 전통춤인 '타도'(打跳) 행사도 열린다. /신화사